

전북 닥터헬기 도입 ‘10주년’

원광대병원 닥터헬기장서 기념행사… 10년간 중증응급환자 1630여명 이송
‘하늘 위 응급실’ 신규 중형헬기 도입… 항공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응급의료전용헬기 이른바 닥터헬기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
도는 15일 원광대학교병원 닥터헬기장에서 전북 닥터헬기 도입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전북 닥터헬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응급의료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와 협력기관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신규 중형 닥터헬기를 계기로 항공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기념식에는 이원택 도지사, 최정호 익산시장,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닥터헬기 10년 성과보고 △신규 중형헬기(AW-169) 소개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닥터헬기는 2016년 원광대학교 병원에 배치돼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북 전역과 충남 서천·보령 등 인접 지역을 누비며 중증응급환자 1,630여 명을 신속하게 이송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환자들을 골든타임 안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연결하며, 하늘 위 응급실로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15일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원광대병원 닥터헬기 10주년 기념식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정호 익산시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등 참석자들이 닥터헬기를 둘러보고 있다.

령 등 인접 지역을 누비며 중증응급환자 1,630여 명을 신속하게 이송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환자들을 골든타임 안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연결하며, 하늘 위 응급실로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도입된 신규 중형 닥터헬기 AW-169는 기존 헬기보다 향상된 기동성과 안전성을 갖춰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의료진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 닥터헬기는 지난 10년간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새로 도입된 중형헬기를 통해 전북의 응급의료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도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4대중독 예방 웹소식지 ‘이음공간’ 발간

중독 예방 정보와 회복 이야기 · 지역 상담기관 안내 등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중독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4대 중독 예방 웹소식지 ‘일상을 찾아가는 이음공간’을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웹소식지는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스마트폰) 등 4대 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웹소식지에는 중독 회복자의 이야기와 전문가 칼럼을 비롯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일상 속 마음건강 관리 방법, 도내 중독 대응기관 및 자조모임 안내 등 도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독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질환으로 바

라보는 인식을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지역사회 지원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웹소식지 ‘이음공간’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정신건강정보·정신건강소식·센터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며 “웹소식지를 통해 도민들이 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도민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24시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북도 감사위, 체감형 청렴문화 확산 나서

현장소통 프로그램 ‘청렴일터 아웃포스트’ 운영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상반기 내부 부패위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15일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프로그램인 ‘청렴일터 아웃포스트’를 운영하고, 상반기 내부 부패위험 진단 결과를 공유하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반기 실시한 내부 부패위험 진단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인사제도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도 인사팀장이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인사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과 갑질 예방, 청렴정책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체

육·관광 분야 보조금 지원과 공모사업, 각종 행사 운영, 민간단체 협력 등 대외 접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특히 중요한 부서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교육과 현장소통을 통해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실·국별 업무 특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청렴일터 아웃포스트’를 지속 운영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청렴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터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조직문화로 자리 잡는다”며 “앞으로도 실·국별 업무 특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구급수요 다시 늘었다

상반기 119구급 7만6천여건 출동 · 이송환자 7.2% 증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2026년 상반기 구급활동 실적 분석한 결과, 도내 119구급대의 출동과 환자 이송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19구급대 출동건수는 7만6,9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3,972건) 증가했다. 이송건수는 3만9,377건, 이송인원은 3만9,784명으로 각각 7.2% 늘었다.
하루 평균 419.8건 출동해 219.8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119구급차가 3.4분마다 한 번씩 출동하고 6.5분마다 한 명의 환자를 이송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구급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이송인원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며 구급수요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환자 발생 유형별로는 질병환자가 2만6,528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부상 7,580명(19.1%), 교통사고 3,665명(9.2%), 중독·연기흡입·온열손상 등을 포함한 비의상성 환자 1,642명(4.1%)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장소는 집이 2만5,288명(6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4,846명(12.2%), 상업시설 2,017명

(5.1%) 순이었다. 특히 요양원 등 집 단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환자는 전년보다 41.5%, 상업시설은 23.8% 증가해 주거지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구급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81세 이상이 1만688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71~80세 8,384명(21.1%), 61~70세 6,791명(17.1%) 순으로 집계됐다. 61세 이상 환자가 전체 이송인원의 65.1%를 차지해 고령층의 119구급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세 이하가 20.3%로 가장 높았으며, 11~20세 14.0%, 21~30세 10.9%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와 젊은 연령층의 구급수요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정지와 심·뇌혈관질환 중증의상을 포함한 4대 중증응급환자는 2,766명으로 전체 이송환자의 6.9%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6.6%(171명)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심혈관질환자가 1,392명으로 전년보다 15.1%(183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뇌혈관질환자는 448명으로 10.1%(41명), 중증의상환자는 236명으로 2.2%(3명) 증가했다. 반면 심정지 환자는 680명으로 전년보다 7.9%(58명) 감소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모기 매개 바이러스 ‘음성’ … 야외 활동시 각별한 주의 당부

전북자치도는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모기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4일 도내에서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올해 처음으로 발견했다.
올해 첫 발견 시기는 지난해(7월 8일)와 비교해 일주일가량 늦어졌다. 이는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비가 자주 내리는 기상 환경이 모기의 생태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다행히 정밀 유전자 검사 결과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을 비롯해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바이러스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이미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 등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제주에서 올해 첫 매개모기가 발견돼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6월 17일에는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논이나 축사 등에 서식하며 야간에 주로 활동한다. 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발열에 그치지만, 영유아나 고령층 등 면역 취약계층은 고열, 두통을 동반한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급성 뇌염은 치명률이 20~30%에 달하고 완치 후에도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남길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공고 제2026-191호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는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구원분묘로 간주하여 편입 법령에 의거 함의 개장(이장)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 원막동 산17면적의 3차
나. 분묘기수 : 9기

소재지	지번	지목	기수
소계	4필지		9기
남원시 원막동	산47	임야	3기
	산52	임야	1기
	산54	임야	3기
	산55	임야	2기

2. 개장시유 :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에 따른 편입 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상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가. 제1차 공고 : 2026년 6월 5일(금) ~ 7월 15일(수) (41일간)
나. 제2차 공고 : 2026년 7월 16일(목) ~ 9월 4일(수) (50일간)
※ 2차 공고는 1차 공고일(공고 기간 41일이 지난 후) 제2차 공고
4. 개장방법
가. 유원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매장장소 : 남원시 숲터길 40-36(송지동 600면적) 남원시 숲화위(남원달)
나. 안치기간 : 남원 후 5년
6. 문의사항 및 연고자 신고
가. 사업시행자 : 남원시청 교육체육과(보상담당자)☎ 063-620-5510
7. 기 타
○ 본 공고 이후 개장 전까지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사업부지 내 동인 민지에서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남 원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3-9700

www.jjmaeil.com